

지역 매아리

지평선축제는 우리가 지킨다

김제시, 추석 성수식품

수거 검사 및 특별 점검 실시

김제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소비 할 수 있도록 추석 성수식품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건강기능식품 포함)를 대상으로 오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추석 명절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로 무허가 제조 및 무신고 제품 판매 여부, 원재료 사용 적정 여부, 유통기한 위·변조 및 경과 제품 사용·조리·보관·진열 및 판매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및 개인위생관리, 허위·과대 표시·광고 여부 등이다.

또한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떡류, 한과, 식용유지, 조미 김, 기타 제수용 농산물 및 다소비 추석 성수식품을 수거,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해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를 할 계획이다.

점검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 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무신고 제품 판매 등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 고발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내년 3월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 대비 축산농가 실태조사

내년 3월 축산농가의 퇴·액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되는 퇴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된다.

이와 관련하여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는 27일~29일까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시료채취와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축산농장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도록 흡수율, 구리, 아연, 염분 성분의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내년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를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등 시험기관에 의뢰해 분석해야 한다.

축산 규모에 따른 부숙도 기준은 허가 규모 6개월, 신고 규모 12개월로 부숙도 등을 검사하고 3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부숙도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이에 따른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 교육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은 "이번 조사는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앞서 축산농가의 실제 준수 가능성에 대하여 축종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완사항 발굴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경찰, 축제 관계자와 설명회... 안전사고 예방 교통관리 대책 등 논의

김제경찰서(서장 임종명)는 26일 김제경찰서 회의실에서 김제시 축제 관계자와 함께 제21회 김제지평선축제 성공 개최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김제시 글로벌 축제 담당의 제21회 지평선축제 추진에 대한 종합 설명을 시작으로 경찰서 각 분야별 협력 및 준비사항,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논의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축제기간 중 안전관리 및 교통관리 대책에 대한 집중 논의로 개·폐막식 및 상품 유희놀이 등 관광객 방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자에 안전 요원을 확대 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축제를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축제장 음식부스 관련하여 청소년 주류 판매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주류판매에 대한 사전교육을 강화하여 미연에 방지 할 계획이며 외곽 지역에는 푸드프리카 플라마켓 위주의 지평선 청년거리로 조성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항상 축제를 위



김제경찰서는 26일 김제경찰서 회의실에서 제21회 김제지평선축제 성공 개최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하여 협력해 주고 있는 김제경찰서에 감사한다. 올해로 21회를 맞이하는 지평선축제가 안전사고 없는 최고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김제경찰서와 협조하여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글로벌 축제, 제21회

김제지평선축제는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10일간, 벽골제 일원에서 대한민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100여개의 프로그램으로 국내·외 관광객에게 잊지 못할 낭만과 추억을 선사 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추석 비상진료체계 구축

내달 12일부터 15일까지 상황실 운영

완주군이 추석연휴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민간의 준비를 하고 있다.

완주군 보건소는 추석연휴기간인 9월 12일부터 9월 15일까지(4일간)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고 군민과 귀성객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비상진료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추석 연휴기간 환자발생 대비 및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및 약국, 보건 의료기관 중심

으로 비상진료에 들어간다.

연휴 중 의료기관과 약국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24시간 운영 편의점에 방문해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의 안전상비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특히 연휴기간 중 보건소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에서는 당직 병의원과 약국 안내, 당직 의료기관 진료체계유지 등을 통해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기간 중 진료기관 및 휴일

지킴이약국 문의사항은 완주군보건소 비상진료대책 상황실(T290-3015) 또는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129 보건복지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응급의료정보제공 서비스 안내시스템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www.e-gen.or.kr, e-gen 앱)을 통해서도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실시간 안내 받을 수 있다.

심해경 완주군보건소장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해 환자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의료공백을 방지하고 군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박준배 김제시장, 확대간부회의 통해 현안업무 점검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국소실장 및 부서장 5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현안 업무를 점검했다.

이날 박준배 김제시장은 "제21회 김제지평선축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육성축제로서 손색이 없

도록 관련부서 간 유기적 협조와 맡은 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주시 바란다"며 성공적인 축제 준비에 만전을 당부했다.

또한 부서별 현안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공모사업 등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에 계속 노력해줄 것과 추석대비 민생안전 중

합대책 추진 및 2015년 4월이후 4년 만에 재개 된 KTX 김제역 정차 시 민홍보를 통한 철도 이용 활성화 등도 등 차질 없는 업무추진을 주문했다. 한편 김제시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연휴를 즐길 수 있도록 민생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종합상황실 운영으로 시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이장·부녀회장 지역리더 역량강화 특강

마을발전을 이끌고 있는 완주군 이장과 부녀회장들이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리더 특강을 수강하는 자리를 가졌다.

완주군 이장연합회(회장 황호년)와 새마을부녀연합회(회장 강귀자)는 지난 22일(이장), 26일(부녀회장) 2회에 걸쳐 완주군청 문화예술회관에서 이장·부녀회장을 대상으로 자치역량강화를 위한 지역리더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강에는 완주군 마을 전체 이장(532명), 부녀회장(427명)이 참석했다. 이장 대상 특강에는 지난 2017년도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대상 명감사로 선정된 양평호 강사가, 부녀회장을 대

상으로 한 특강에서는 25년간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에서 교수로 활동한 박래현 강사가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이장과 부녀회장의 역할과 자세'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강사들은 갈수록 다양해지는 주민 수요에 맞춰 지역 리더에 요구되는 소통과 공감에 대해 이야기 하며 이장과 부녀회장들의 호응을 특강했다.

특강에 함께한 박성일 완주군수는 "마을의 발전이 우리군 번영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 특강을 계기로 이장·부녀회장님들이 중심이 되어 군민 화합과 지역 사회 발전의 견인차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이서면 행정복지센터 내 배꽃뜰작은도서관

완주군, 배꽃뜰작은도서관 새 단장

이서면,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

그림책방·성인열람·동아리방 리모델링

완주군 이서면 행정복지센터 내 배꽃뜰작은도서관이 리모델링을 마치고 새롭게 운영을 시작했다.

26일 완주군에 따르면 배꽃뜰작은도서관은 지난 2008년 5월 7일

개관한 이후 1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공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이서 주민들의 독서 문화 공간으로 사랑받아 왔다.

하지만 시설 노후화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고, 이에 군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2019년 생활SOC사업에 선정돼 리모델링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아이와 부모가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림책방, 성인 열람 공간, 동아리방 등이 새롭게 꾸며져 주민편익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또한, 배꽃뜰작은도서관 운영을 주민 독서 단체인 비체나누(비우고 채우고 나누고 누리고)에서 직

접 꾸러기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변경했다. 주민들이 도서관의 운영의 주체가 되면서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은주 비체나누 대표는 "작은도서관을 주민의 손으로 직접 꾸러가는 기회가 주어져 기쁘다"며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만큼, 주민들에게 더욱 친숙한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은 관내 작은도서관(6개소)을 공동체식 함양과 지역 특성을 살린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지난 8월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매주 월요일~토요일(오전9시~오후6시)까지이며,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휴관한다. 도서반납은 정문 앞 반납함을 이용 해 언제든지 가능하다.

/완주=이종복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